

머 리 말

창간호를 내놓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본 연구소가 설립된 지 얼마 안돼서 「국어생활」 창간호를 급하게 세상에 내놓고 보니, 그에 대한 기초 작업과 후속 계획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 동안 이에 대한 보완 작업으로 수개월을 보내게 된 것이다.

「국어생활」은 우리 온 국민의 말과 글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이 관공서나 또는 한정된 일부에 머물지 말고 국민 모두에게 보급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적어도 일년에 네 번 나오는 계간지로 만들고 싶다. [이런 우리의 소망이 허용되고 또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번 호에는 “국어 속의 외래어”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그것은 현재 “외래어 표기법”의 개정 작업이 급히 진행되어가고 있어 불원간 그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지식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다음 호에선 이 안의 소개와 해설을 붙이고자 한다.